

4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24.94	↑ 코스닥	840.81
	(+30.93)		(+4.71)
↓ 금리 (연율)	3.128	↓ 환율 (원/달러)	1380.40
	(-0.032)		(-10.20)

다시 기업가정신
구인회
LG그룹 창업회장
03



m-커버스토리

정제마진 하락에 수익성 악화 脫정유 중심 친환경사업 확대

위기의 정유업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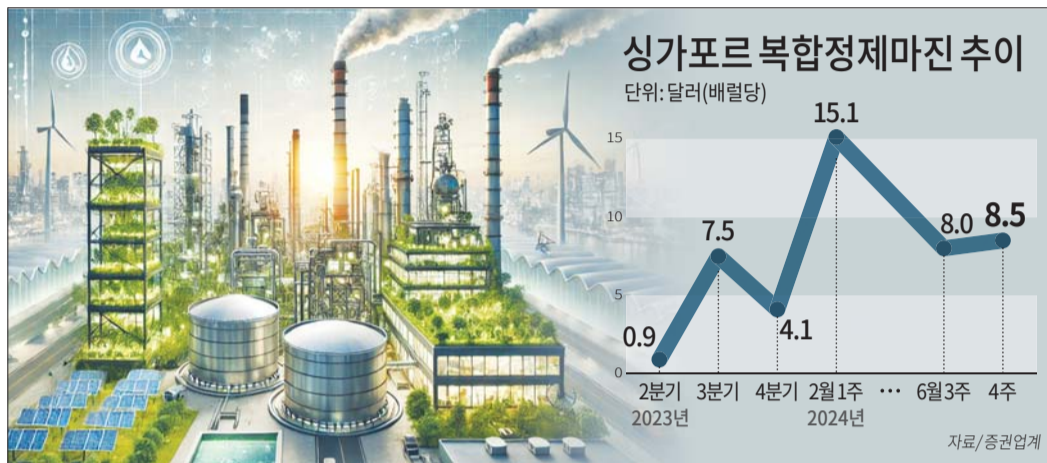
정제마진 여전히 약세
업계, 정유사업 벗어나
SAF·액침냉각유 등
친환경 새 먹거리 모색

정유업계가 정제마진 하락 등 요인으로 수익성 악화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정유사들은 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정유 사업에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관련기사 4면〉

4일 업계와 증권가에 따르면 정유사 정제마진이 4주 연속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계절적 요인으로 강세를 보여야 할 시기인 점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6월 마지막 주 평균 복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전통적인 정유 공장과 첨단 친환경 기술이 결합된 미래지향적인 정유소' 이미지.

합정제마진은 전 주 대비 배럴 당 0.5달러 개선된 8.5달러로 평가됐다.

지난 5월 마지막 주 5.4달러를 기록한 이후 4주 연속 올랐고 그사이 상승 폭은 3.1달러에 달했다. 다만 연중 가장 높았던 지난 2월 첫째 주의 15.1달러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휘발유 마진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다.

정제마진의 하락 요인으로

는 아시아의 유럽향 경유 수출이 감소해 중간유분 재구가 지난 2019~2023년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증가한 점이 꼽힌다. 중국·인도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이 확대되고 쿠웨이트, 나이지리아의 신규 정제설비가 가동을 시작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정유산업은 원유정제를 통해 연료유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료인 나프타를 생산하는 산업이다. 특히 원유 수입 의존도와 제품 수출 비중이 높아 유가 변동에 민감하다. 지

난해 기준 국내 정유산업의 정제능력은 세계 5위 수준으로, 원료인 원유의 중동 수입 의존도가 높다. 수출비중 또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정제공정 및 고도화공정 등을 통해 각종 정유 제품을 생산한다. 따라서 유가가 상승 하더라도 원유 가격 상승분만큼 이익을 얻지는 못하는 구조다.

〈4면에 계속〉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가 오는 7월 17일(수) 오후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저성장·양극화 기조 속에 금융·자산시장의 위기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끝없이 최고가를 경신중인 미국 증시와 달리 국내 증시는 커진 덩치와 달리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부동산시장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세대의 미래 삶에 불안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재테크 전략을 궁리해야 할 때입니다.

메트로경제는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을 주제로 당면한 고민을 풀어보는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정재훈 KB부동산 박사,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팀장 등 자산관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중장년층부터 청년층까지 모두가 만족하는 '자산 밸류업' 전략을 모색 합니다.

- 행사명 : '2024 100세플러스 포럼' (시즌 2)
- 주 제 :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일 시 : 7월17일(수) 14:00~17:00(VIP 티타임 13:30~ 14:00)
- 장 소 :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의 및 등록 : '2024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26, (www.metroseoul.co.kr),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금융위장 김병환, 환경장관 김완섭, 방통위장 이진숙 “새 수출 동력 ‘전력기자재’ 올해 2.7조 무역금융 투입”

尹, 총선 후 첫 장관급 인사
차관급 정무직 인선도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김병환 기재부 1차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완섭 전 기획재정부 2차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지명했다.

제22대 총선 후 장관급 인사는 처음으로, 이를 시작으로 부처 수장들이 차례대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병환 1차관은 제37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경제 1분과 전문위원으로 파견됐고,



김완섭(왼쪽부터)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정무직 인선 발표 브리핑에서 각각 지명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에 임명됐다. 기재부 1차관에 작년 8월에 임명됐고, 10개월 만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에 내정됐다.

환경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완섭 전 2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경제 관료로 기

재부 예산실장을 지낸 예산통으로 알려졌다.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사장은 MBC 기자 출신으로 이라크전 당시 최초의 여성 중군 기자로 활약하는 등 현장 경험과 경영으로서의 능력을 인정받았다.

윤 대통령이 이날 지명한 3명의 장관급 인사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준비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통령실은 정무직 인선으로 인사혁신처장에 연원정 대통령실 인사제도 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에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 대통령실 박범수 농해수비서관, 농촌진흥청장에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산림청장에 임상섭 산림청차장,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에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재홍 국민대 한국역사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백태홍 기자 pth7285@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

정부가 올해 전력기자재 품목 수출 지원을 위해 무역금융 2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전력기자재 산업을 새 수출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HD현대일렉트릭 본사를 방문해 전력기자재 업계와 '제8차 수출현장지원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수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HD현대일렉트릭 조석 사장, 효성 우태희 사장, LS일렉트릭 김종우 사장, 서진하이텍 유은경 대표 등

업계 관계자와 한전 김동철 사장, 코트라 유정열 사장, 무역보협공사 장영진 사장 등 수출지원기관 등이 참석했다.

최근 인공지능(AI) 구현을 위한 데이터센터 증설, 신재생·원전 등 무탄소전원 확산을 위한 계통연결 수요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전력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기자재 시장은 이른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기자재 수출도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가전, 섬유 등을 넘어 바이오헬스, 이차전지 업종과 어깨를 겨루는 신 수출동력으로 부상했다.

〈2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이원석 검찰총장 “상대가 저급하게 나와도 외압 굴복 말아야” /사진 뉴시스
- ▲ 한동훈 “내가 제안한 채상병 특검법은 공정한 결과 담보할 수 있다”

- ▲ 조국 “빠르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현 대통령 임기 단축 논의”
- ▲ 나경원 “나치 같은 민주당, 이재명 범죄 가리려 숫자로 밀어붙여”



- ▲ 민주당 “국힘 필리버스터, 진상규명 막으려는 궤변의 궂판” /사진 뉴시스
- ▲ 서국민의힘 “검사 탄핵” 민주당, 입법 폭주병·탄핵남발병 중환자 집단”